

보령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 3일간 관내·외 주요 사업장 14개소 방문 점검, 조례안 등 16건 의결
- 조장현, 이정근 의원 5분 발언, 서경옥, 김재관, 백영창 의원 조례안 발의
- 박상모 의장,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해 달라” 당부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제251회 임시회를 5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3일에 걸쳐 주요 사업장 14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 조장현 의원



▲ 이정근 의원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필요’를 주제로 조장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조장현 의원은 발언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이동식 주택 지원’과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정근 의원이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정근 의원은 “폐선철로 활용과 관련한 모든 계획과 사업의 종합적인 연동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도 포함 됐다. 서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액을 1인당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됐다.

백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판매예정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 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 서경옥 의원



▲ 김재관 의원



▲ 백영창 의원

10일부터 12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14개소를 방문 점검 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북부지역 5개소, 남부지역 7개소를 각각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전광역시 소재 ‘충청남도 광역 직거래센터’ 등 2개소를 찾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일간 진행한 관내·외 14개소의 사업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는 등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 박상모 의장

박상모 의장은 “3일간의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수요자 편의성, 향후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및 개선사항을 잘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5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운영될 계획이다.



▲ 주요 사업장 방문